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행사](#)

검색탭

이벤트

코로나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로그아웃](#)[마이페이지](#)[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행사](#)

검색탭

로그인

아이디 :

비밀번호 :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로그아웃](#)[마이페이지](#)[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회원가입

아 이 디 :

비 밀 번 호 :

비밀번호 확인 :

이 메 일 :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로그아웃](#)[마이페이지](#)[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회원가입

아 이 디 :

비 밀 번 호 :

비밀번호 확인 :

이 메 일 :

인 증 번 호 :

해당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었습니다.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로그아웃](#)[마이페이지](#)[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회원가입

아 이 디 :

중복된 아이디 입니다.

비 밀 번 호 :

비밀번호 확인 :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메 일 :

인 증 번 호 :

인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로그아웃](#)[마이페이지](#)[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 전국 ▼
- 전국
- 서울
- 인천
- 대전
- 대구
- 광주
- 부산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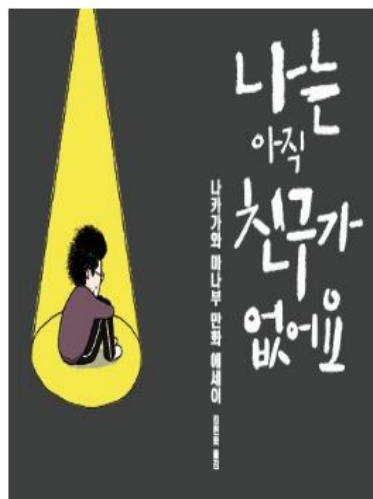
검색



제입니다.



신나는 축제입니다.



신나는 축제입니다.



신나는 축제입니다.



[로그아웃](#)[마이페이지](#)[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행사 이름 제11회 월드커피리더스포럼

행사 시기 2022.03.14 ~ 2022.03.16

연 락 처 02-6000-6698

홈페이지 www.wclforum.org

"아시아를 대표하는 커피 전문 컨퍼런스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은 UN 산하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가 전세계 최초로 공식 후원하는 국제회의로써 2012년 첫 개최 이후로 글로벌 커피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회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세계 최고 커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시장이 직면한 변화를 짚어보고 산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왔다.

커피의 높은 품질에 대한 니즈로 인해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확산, 이에 따른 원가 부담과 커피 가격 상승,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커피 병충해 및 재배 온도 부적절 현상, 커피 생산자와 소비국과의 관계, 팬데믹 이후 커피 시장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솔루션 등 글로벌 커피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초청 연사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은 세계 커피 시장의 경향과

리뷰

주변관광지

이 곳을 방문하셨다면 리뷰를 남겨 보세요.

리뷰 쓰기

작성자 : 박나연

작성일시 : 2022-01-24

제목 : 너무 재밌어요!!!!

이
미
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작성자 : 박나연

작성일시 : 2022-01-24

제목 : 너무 재밌어요!!!!

이
미
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작성자 : 박나연

작성일시 : 2022-01-24

제목 : 너무 재밌어요!!!!

이
미
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도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제공한다."

리뷰

주변관광지

이 곳을 방문하셨다면 리뷰를 남겨 보세요.

리뷰 쓰기

이
미
지제목 :

X

사진 :

찾아보기

이
미
지이
미
지이
미
지

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
개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

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
개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

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
개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

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
개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

등록

취소

리뷰

주변관광지



신나는 관광지입니다.



신나는 관광지입니다.



신나는 관광지입니다.



신나는 관광지입니다.



신나는 관광지입니다.



신나는 관광지입니다.



신나는 관광지입니다.



신나는 관광지입니다.



[로그아웃](#)[마이페이지](#)[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행운을 잡아라

숫자 세개를 선택해 주세요 !



3 6 8

응모하시겠습니까?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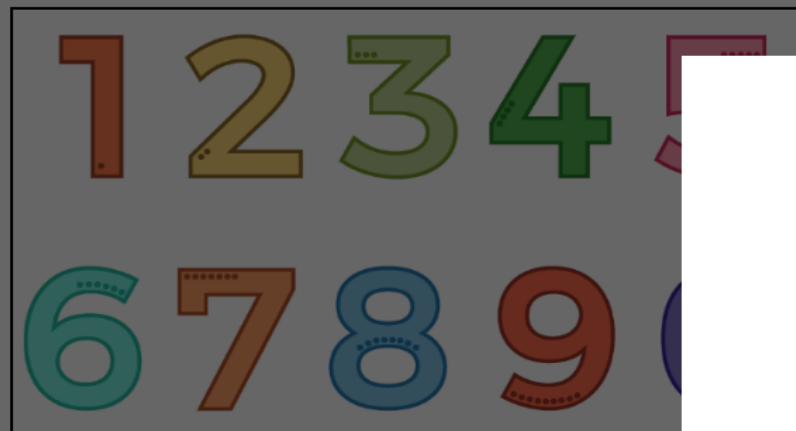
[로그아웃](#)[마이페이지](#)[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행운을 잡아라

숫자 세개를 선택해 주세요 !



3 6 8 응모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확인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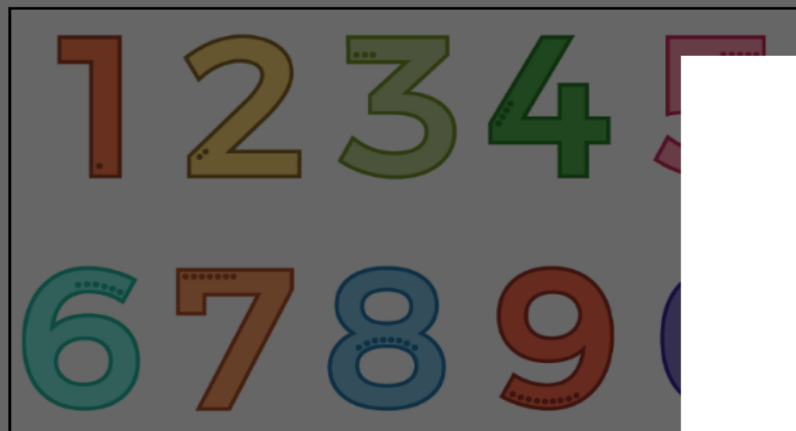
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행운을 잡아라

숫자 세개를 선택해 주세요 !



응모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숫자를 선택해주세요

확인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행운을 잡아라

숫자 세개를 선택해 주세요 !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아웃](#)[마이페이지](#)[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행운을 잡아라

숫자 세개를 선택해 주세요

로그인

아이디 : 비밀번호 :

5

6

7

8

9

0

3

6

8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로그아웃](#)[마이페이지](#)[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행운을 잡아라

당첨자 발표

당첨번호

당첨자 id	당첨자 email
1번째 당첨자 id	1번째 당첨자 email
2번째 당첨자 id	2번째 당첨자 email
3번째 당첨자 id	3번째 당첨자 email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iLoveDodari 님 .

내 정보 수정

내 리뷰 관리

더 보기

내 찜 관리

더보기

리뷰 박스

찜 박스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비밀번호 확인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취소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새 비밀번호번호 비밀번호 확인

변경

취소

회원탈퇴를 원하시면 회원 탈퇴 버튼을 눌러주세요.

탈퇴하기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정말 탈퇴 하시겠습니까?

취소

탈퇴

[로그아웃](#)[마이페이지](#)[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1번째행사 이름입니다.

삭제

2번째행사 이름입니다.

삭제

3번째행사 이름입니다.

삭제

4번째행사 이름입니다.

삭제

5번째행사 이름입니다.

삭제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내 리뷰 보기

이미지

작성자 : 박나연

작성일시 : 2022-01-24

제목 : 너무 재밌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리뷰 수정

리뷰 삭제

이미지

작성자 : 박나연

작성일시 : 2022-01-24

제목 : 너무 재밌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리뷰 수정

리뷰 삭제

작성자 : 박나연

작성일시 : 2022-01-24

제목 : 너무 재밌어요!!!!

내 리뷰 보기

작성자 : 박나연

작성일시 : 2022-01-24

제목 : 너무 재밌어요!!!!

이미지

제목 :

X

사진 :

찾아보기

등록

취소

이미지

이미지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
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
내 영혼의 슬픈 눈.

리뷰 수정

리뷰 삭제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
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
내 영혼의 슬픈 눈.

리뷰 수정

리뷰 삭제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
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
내 영혼의 슬픈 눈.

리뷰 수정

리뷰 삭제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행사](#)

검색탭

로그인

아이디 :

비밀번호 :

로그인

취소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회원 조회

리뷰 조회

아이디

이메일

test1 str1

email1@naver.com

삭제

test2 str2

email2@naver.com

삭제

test3 str3

email3@naver.com

삭제

test4 str4

email4@naver.com

삭제

test5 str5

email5@naver.com

삭제

test1 str1

email1@naver.com

삭제

test2 str2

email2@naver.com

삭제

test3 str3

email3@naver.com

삭제

test4 str4

email4@naver.com

삭제

test5 str5

email5@naver.com

삭제

« 1 2 3 4 5 »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회원

회원을 삭제하시겠습니까?

- ☐ 욕설
- ☐ 음란성 게시물
- ☐ 폭력성 게시물
- ☐ 괴롭힘
- ☐ 도용

탈퇴

취소

리뷰 조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1 2 3 4 5 »

김씨는 3명인데 박씨는 1명

어쩌다 여행

전국의 행사 이벤트

회원 조회

리뷰 조회

이미지

작성자 : test1 str1

작성일시 : 2022-01-24

제목 : email1@naver.com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리뷰 삭제

이미지

작성자 : test2 str2

작성일시 : 2022-01-24

제목 : email2@naver.com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리뷰 삭제

작성자 : test3 str3

작성일시 : 2022-01-24

구현이 안되어있음